

호남, 文 달고 孫 잡나... 野 대권구도 흔들

(재인) (학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손학규 22.4% 1위 급부상

리얼미터 여론조사... 박원순 20.5%, 문재인 19.4%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야권의 대권 주자 구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굳건한 1위를 지키던 문 대표가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속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체 1위 자리를 넘겨주는 사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호남지역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손 전 고문이 거듭되는 정계복귀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원 등판론'의 대상으로 주가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손 전 고문은 호남 지역에서 유력 야권 주자들을 제치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22.4%)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20.5%)이 2위에 올랐고 문 대표(19.4%)는 3위에 그쳤으며, 안철수 전 공동대표(18.6%)가 뒤를 이었다.

손 전 고문은 호남신당 창당 시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 순위에서도 1위(30.6%)에 올랐고, 이어 안 전 대표(26.8%), 박지원 의원(10.7%), 박 시장(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13~14일 광주·전남·전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결기(RDD) 방법을 통한 ARS 조

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문 대표는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으로 대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5월 11일~15일, 2500명 대상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표는 19.6%의 지지를 받았다. 21.4%를 받은 김 대표에게 뒤처졌으며, 둘의 지지도 격차도 지난주 0.1%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8 전당대회 이후 처음이다.

박 시장은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오른 12.9%의 지지율을 기록, 문 대표와의 격차를 6.7%포인트로 좁혔다. 안 전 공동대표는 0.1%포인트 상승한 7.9%를 기록했다. 이 같이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분란 속에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표는 재보선 참패와 이후 책임론을 둘러싼 당의 내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점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고문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서 곳곳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흔들리는 당의 리더십을 바로잡고 화합과 새신을 끌고 가기에 적합한 대표 인사 중 하나라는 점 등을 들어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손 전 고문 측은 여전히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는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조용히 서울에서 은사들과 식사 후 '정치적 동지'였던 김재균 전 국회의원의 빈소에 들렀다가 다시 강진 토담집으로 돌아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전남도, 여수항 홍보 나섰다

상하이 설명회 유치단 파견

맞춤형 관광 상품 등 소개

전남도가 중국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관광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19일 이재철 관광문화체육국장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을 해양수산부 주최 관광설명회가 열리는 중국 상하이 힐튼호텔에 파견해 중국 내 로얄 캐리비언과 코스타 애플란티카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여수항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5만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여수항이 준설했던 점과 여수엑스포장에 위치해 입출항 시 주변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항구이면서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순천만정원 등 주변 관광자원이 많은 여수항의 시설과 자원 측면에서의 장점과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여수항에 크루즈 관광객 편의 제공

을 위해 건립 중인 '크루즈 관광객 종합 안내센터' 건립이 오는 7월 완료되면 국제 크루즈 부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는 만큼 '여수항 알리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행사다. 전남도는 물론 부산, 제주 등 국내 5개 지자체와 항만공사 등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28개 기관이 참여한 '전남도 크루즈 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마이애미 박람회와 4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제크루즈 포럼에 참가하는 등 도내에 국제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재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미용, 의료, 축제, 공연, 마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의 테마관광, 체험관광, 교류관광 등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통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8일 나주 혁신도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의무수입물량(TRQ)의 30%인 12만t을 밥쌀용 쌀로 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혀 놓고도 지난 8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밝혔"고 지적했다.

농수산위는 "정부가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게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농수산위는 또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ha당 100만원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을 2017년까지 120만원으로 인상하라"며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맞춤형 복지 급여' 내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 받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기존에 지급받던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비율별로 개별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

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이다 보니 수급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주자 있을 수 없어"

김한길 전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18일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주자는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의 우리 정치는 5·18 민주화운동에 큰 빛을 지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의 경우 광주와 호남의 민심과 함께하지 않는 미래란 생각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광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우리 당이 선거 참패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아픈 말씀들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4·29 재보선에서 광주 서울을 포함해 4개 선거구에서 전패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지도부의 반성과 새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1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개인성명서를 통해 "오로지 친노(친노무현)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표가 비노 진영의 '패권주의 청산론'을 사실상 자본 나눠먹기로 규정한 비공개 입장들이 외부에 알려진 뒤인 지난 15일에도 김 전 대표는 "재보선 패배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었다"고 문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년9개월만에 방한한 반 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사말을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1년 9개월여 만에 방한한 반 총장은 오는 22일까지 머무르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반총장 "박대통령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논의"

세계교육포럼(WEF) 참석차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4시4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기자들에게 "2013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

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한국과 유네스코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포럼에서 교육이 어떻게 세계 평화와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세계 주요 교육계 지도자들과 한국 정부, 유엔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국의 국제사회, 평화 안정, 개발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방한기간 유엔과 한국간 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방한 기간 유엔 글로벌파트너(UNGC) 지도자 정상회의, 유엔아카데미 임팩트(UNA1) 서울포럼 등의 유엔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교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p>동강대학 263-0136 (말바우 사거리)</p> <p>두암신협 본점</p>	<p>두암타운사거리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p> <p>두암신협 울곡지점</p>	<p>부영아파트 572-9511 (호남아파트 청문 맞은편)</p> <p>두암신협 청단지점</p>
---	---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우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p>여</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3) **275-7766** (전주시 서산동)